등은 서원이다

‘빈자일등’ 정신, 민중 서원과 함께 이어지다

변천사로 본 등의 변화 · 발전



고려에서도, 조선에서도 연등회날이면 집집마다 등간을 세우고 가족 숫자만큼 등을 달았다. 이 사진은 옛모습을 재현한 조계사의 등간 전시. 사진=연등회보존위원회

등 만들고 밝히며 축제를 즐기던 민족

14세기 고려의 유학자 목은 이색은 연등회 밤이면 산에 올라 관등놀이를 즐기고 그 감회를 시에 담았다.

“연등은 성안 가득 끊임없이 이어지고/ 무리 지어 몰려다니며 부처 이름을 외우는 밤/ 나이든 나도 그동안 병으로 신음만 하다가/ 다시 흥에 편승하여 말 머리 나란히 하였는데/ 지난해보다 구경거리 더 많은 올해의 관등놀이.”

18세기 조선의 선비 이종악이 안동에서 관등놀이를 즐기며 지은 싯구절은 다음과 같다.

“반구정에 돌아와 뜬 달을 보고 누우니/ 성안 가득한 연등, 이 또한 기쁜 명절이구나.”

두 편의 시가 지어진 세월은 400년 차이가 난다. 하나는 고려의 수도 개경에서, 하나는 조선유교의 메카 안동 땅에서의 관등이지만 성안 가득 연등으로 불 밝혀진 장관은 다를 바 없다. 불자가 아닌 대표적인 유학자들이 하나같이 불 밝혀진 등 행렬 속에 젖어서 흥에 겨운 기쁜 명절을 보내고 있음도 알 수 있다.

866년 신라 경문왕이 황룡사에 행차해서 연등을 구경하고 백관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 이후로 손수 등을 만들고, 손수 등을 밝히고, 거리로 나아가 만인이 밝혀놓은 등의 장관을 보고 즐기는 관등풍속은 고려와 조선, 그리고 근대를 지나 오늘날까지 면면하다.

등은 불을 사용해서 어둠을 밝히는 도구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진리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으라”였다.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처럼 미혹함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힘쓰라는 간곡한 유훈이었다. 선종의 지침서 〈달마대사관심론〉에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몸으로 등대를 삼고, 마음으로 등잔을 삼고, 믿음으로 심지를 삼고, 계행으로 기름을 삼는다”고 했다. 〈등지인연경〉 〈잡보장경〉 〈보살본행경〉을 비롯한 무수한 경전 역시 등불의 비유는 빠짐없이 등장한다. 불교에서 등은 어둠, 즉 어리석음을 밝혀서 지혜와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상징이기에 우리는 마음에 등불을 켜고, 이웃을 위한 등불이 되기를 서원한다.

그 옛날에는 어떤 등이 있었을까

〈삼국유사〉에는 신라 망덕사 스님 선율이 참기름[胡麻油]을 가져다 불등에 불을 켜달라는 내용이 나온다. 등공양이 생활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고려의 문인 이인로는 붉은 비단으로 만든 초롱등을 놓고 시를 지었다. 충렬왕비가 연 특설 연등회에는 호화롭기 이를 데 없는 진주와 옥으로 만든 등이 등장한다.

고려의 등제작 기법이 발전하면서 조선시대에는 다채로운 등문화가 꽃을 피운다. 태종실록에 따르면 표범등, 봉황등을 비롯해 500개의 등을 궁궐에서 밝혔다. 이날 밤 태종은 창덕궁 후원에서 관등을 즐긴 뒤에 등을 만든 장인 26명에게 각각 쌀 한 석씩을 하사했다. 그리곤 정월대보름 연등회에서 사용한 등은 사월초파일 연등회에서도 재활용하라고 명한다.

연등에 관해 각별함을 보인 왕은 정조였다. 세손시절, 사월초파일 관등을 위해 스승 홍대용을 궁궐로 초대한다. 이때 스승과 나눈 대화 속에 옥등, 양각등, 비단채색등, 유리등, 진주등, 난간등과 같은 흥미로운 등이름이 등장한다. 인원왕후 김씨가 만든 진주등은 정말 아름답다는 극찬도 아끼지 않았다.

오랜 옛날부터 사찰마다 지화와 등을 제작하는 꽃방이 있었다. 꽃방에서 전통 방식으로 등이 제작되었다. 한지에 그림을 그리거나, 오리기, 말아 붙이기를 해서 만든 등이다.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틀로 삼고 한지를 붙여 만든다. 그 위에 오려붙이는 색한지는 치자나 소목, 시금치와 같은 식물을 비롯해 자연의 소재로 염색한다.

〈동국세시기〉에는 수박등, 마늘등, 가마등을 비롯해 33개의 등 이름이 등장한다. 과일, 채소, 꽃, 동물, 십장생을 비롯 등의 종류도 다채롭다. 조선 연등회 풍속도를 시로 남긴 유만공은 옥항아리등, 연꽃등, 마늘등, 방울등을 소개하고 있다. 거위알등, 바가지등 같은 독특한 등 이름도 등장한다. 민요 ‘관등가’에도 어룡등, 신선등, 벽장등을 비롯한 22가지 등이 나온다.

이처럼 다종다양한 등이 만들어졌던 것은 등이 만인의 소망을 담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거북등을 빚으면서 무병장수를 기원하고 석류등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기원했다. 삿됨을 물리치기 위해서 호랑이등을 만들었고, 아예 등에다 수복, 태평, 만세 등의 글자를 오려놓기도 했다. 유정무정의 것들이 빠짐없이 등으로 탄생한 것이다.

> **등, 미혹 벗어나 지혜로 가는 상징**
> **1300년간 시대 발맞춰 발전 거듭해**
> **정성 담긴 전통등이 품격 한층 높여**
> **등강습으로 노하우 · 기술 세대전승**

옛사람들은 등불을 어떻게 밝혔을까

고려의 백성들은 “집집마다 장대를 세워 등불을 걸었으며 부자들은 크게 채색한 등대를 세웠다. 층층이 달린 그 많은 등불은 마치 하늘에 별이 펼쳐진 것” 같았다고 한다. 문종 27년에는 거리에 3만개의 등이 달렸다. 보한집에는 “수많은 등불이 하늘까지 이어져 그 밝음이 대낮 같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더구나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에 소품 장식하듯 나무에 등을 줄줄이 달아놓고(火樹), 등륜에 무수한 등을 걸어서 등불나무(燈樹)를 완성하기도 했다. 또 누대 위에 작은 산을 만들거나 산대 위에 등을 달아(燈山) 두기도 했다. 이러한 장식으로 등은 각종 행사 현장에서 광명의 바다를 이루면서 축제 분위기를 이끌었다.

조선초 강희맹이 “긴 등대에 하늘하늘 채색 끈 흩날리고 구슬나무에 금속꽃이 주렁주렁 피었구나”라고 노래한 것을 보면 연등회 밤 한양에서도 고려의 개경과 다름없는 연등축제가 펼쳐졌다. 조선 후기 유만공의 시에 “기이하게도 긴 장대에 자라와 잉어가 매달려 있네”라는 구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장대에 잉어등과 자라등을 세워놓던 모양이다. 그는 또한 “시내 건물의 처마가 영롱하게 비치니 한 일(一)자로 등불 걸어놓은 것이 만 군데서 붉다”고 했다. 한 일자로 등불이 걸려 있다는 것은 오늘날 가로연등처럼 거리를 가로질러 달아놓은 연등으로 이해된다.

일제강점기 총독부 중추원 자료에 따르면 초파일에 “긴 나무를 문 앞에 세우고 장대 머리에 꿩의 깃털을 꽂고 오색종이를 붙인 등을 매단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그 자녀의 수만큼 위에서부터 아래로 순차적으로 점등하여, 위를 첫째로 하고, 아래를 막내로 한다. 등불이 가장 밝은 것에 해당하는 자녀는 운이 크게 좋다고 하고, 등불이 어두운 사람은 흉하다고 하여 그 등에 술과 떡을 올리고 운을 바로잡는다”고 한다. 등 하나에도 복을 기원하며 소망을 담던 이들이 조선의 백성이었다. 국권침탈을 당했어도 설날과 추석을 기리듯이 사월초파일 연등회 풍속을 잊지 않고 즐겼다. 그것이야말로 나라 잃은 백성들이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다. 이처럼 정성스럽게 등을 만들고 등불을 밝히고 그 등불을 보고 즐겨온 역사속 이웃들이 있었기에 1300여 년 동안 등은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며 다채롭게 변화·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다.

K-연등, 한류를 이끌다

연등은 한류 팬들 사이에서도 큰 인기다. 지난 2022년 파리의 주한 프랑스문화원에서 연등회 특별전이 석달동안 열렸다. 개원 이래 역대 최다 관람객 수인 5만명이 다녀가는 인기를 누렸다. 이는 파리 시립 미술관의 연간 관객 수와 맞먹는 역대 최대 흥행 기록이다. 각양각색의 전통한지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름다움에 반하는 게 큰 이유일 것이다.

일각에서 더 반짝이고, 더 화려하고, 더 눈길을 끌고, 더 커다란 등을 만들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눈부시지 않아도 아름다움을 담보하는 것이 전통의 힘이다. 전통을 되살린 한지등은 은근히 우러나오는 빛의 세계가 압권이다. 뭐든 쉽게 사고 쓰고 버리는 시대에 번거로워도 전통등의 정신을 계승하며 등을 만드는 일은 연등회의 품격을 한층 높이는 과정이다.

전쟁을 통해 인도를 통일한 아사세왕은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 참회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보답으로 왕은 궁궐에서부터 절에 이르는 긴 거리에 기름등을 밝혔다. 이를 지켜보던 가난한 여인은 구걸한 돈으로 먹을 것을 사는 대신 기름집으로 향한다. 등공양을 올리면서 ‘만약 훗날 깨달음을 얻는다면 광명은 시들지 않을 것’이라고 간절히 서원했다. 밤사이 왕의 등불은 꺼졌으나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은 다음날까지 환희 밝아 있었다. 가난한 여인이 밝힌 등 하나(貧者一燈)에 관한 〈아사세왕수결경〉의 가르침이다.

한때 공장에서 날림으로 제작한 비닐등이 중심을 이루고, 국적 모를 접이식등이 연등을 대표하던 시절도 있었다. 연등회보존위원회에서 전통등의 복원과 계승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1996년부터다. 이때부터 등제작 과정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정기적인 전통등 전수교육을 통해 등 전문가들이 꾸준히 배출되었다. 이들이 자신의 사찰과 단체에서 등강습을 하면서 등제작에 관한 다양한 노하우와 기술은 자연스럽게 세대전승 중이다.

과거 꽃방의 맥을 이어 오늘날 전국적으로 연등공방이 운영된다. 전통방식을 익히고 나면 디자인과 색상은 다양하게 실험되고 열정적인 아이디어가 더해져 해마다 창의적인 행렬등들이 만들어진다. 다소 손재주가 부족해도, 시간 내기 어려워도 공방에 모여 함께 작업한다.

공동작업은 배려하고 화합하는 과정이다. 소박하지만 정성스럽게 등을 만들고, 공동체 정신으로 함께 마음을 나누며 등을 만드는 일이야말로 빈자일등의 정신이다. 그것이 1300여 년을 이어온 연등회의 힘이자, 유네스코 세계인류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핵심 포인트다.



이윤수
문화예술콘텐츠진흥원 전문위원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백 담 사

사부대중일동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 종무소 전화 033)462-6969 | www.baekdamsa.or.kr
■ 템플스테이 연수원 전화 033)462-5565,5035 | baekdam6969@daum.net

